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대한 ‘실증적’ 비판과 그 한계

—19세기말의 식민지 팽창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徐 廷 勳*

I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자본주의 열강들은 치열한 식민지각축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세기가 끝날무렵 거의 전세계가 이들의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로 분할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어났던 열강의 세계분할은 그 규모와 진전 속도, 그 진행방식에서 이전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현상이었으므로¹⁾ 그 시대인들은 물론 오늘날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를 규명하려고 노력해 왔다. 역사학계는 이러한 설명들과 그 대상시기를 일반적으로 ‘제국주의론’, 그리고 ‘제국주의시대’로 규정해 왔다. 열강이 식민지 제국을 건설한 원인에 대해 처음으로 체계적인 이론적 설명을 제시한 사람은 1902년 『제국주의론』을 저술한 영국의 사회개량주의자, 홉슨(J. A. Hobson)이었다.²⁾ 그는 중심부경제와 식민지팽창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인과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경제적 제국주의론’ 또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론’, ‘고전적 제국주의론’, ‘제국주의의 경제적 해석’ 등

*사학과 조교수

- 1) 19세기 말의 이러한 제국주의적 현상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19세기 중엽 이래 지속된 것임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팽창의 근본적인 추진력이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전환되었다는 점과 영국의 식민지 독점의 상황 대신 열강의 경쟁적 상황으로 전환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연속설에 대해서는 J. Gallagher & R. Robinson, "The Imperialism of Free Trade", *the Economic History Review*, Vol. II, No.1 (1953), 이에 대한 비판은 필자의 논문, "빅토리아후기(1870~1903)의 대외팽창성격: 자유무역제국주의론의 연속성태를 중심으로" 『울산사학』 창간호(1987)를 참고 할 것.
- 2) J. A. Hobson, *Imperialism: A Study*, (Frome and London, Butler & Tanner Ltd, 1968, 초판은 1902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제국주의론의 창시자로 간주되어왔다.³⁾ 이보다 14년 뒤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고도단계』를 펴낸 레닌(V.I. Lenin)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저술을 펴낸 힐퍼딩(R. Hilferding)과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 부하린(N. I. Bukharin)등도 경제적 제국주의론을 주장한 연구자들로 분류되는 것이 보통이다.⁴⁾

19세기말의 식민지병합을 주로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경제적 제국주의론이 제시된 뒤 이러한 설명을 비판하고 다른 정치적, 전략적, 사회적, 지역적 요인 등을 강조하는 제국주의론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경제적 제국주의론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서 주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던 사람은 홉슨과 레닌이었다.⁵⁾ 이들은 경제적 제국주의론의 대표격으로 취급되어 거센 비판을 함께 받아왔다.

경제적 제국주의론에 대한 영어권세계의 많은 비판자들은 홉슨과 레닌의 이론을 보다 좁은 의미에서 동일한 이론적 모형으로 간주했다. “제국주의론의 역사적 수정”이라는 논문을 통해 경제적 제국주의론에 대한 여러 비판들의 종합·정리를 시도했던 필드하우스(D. K. Fieldhouse)는 양자의 일치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홉슨과 레닌은 그 세부적인 내용에선 서로 다르지만, 자본주의국가안에 대외투자를 요구하는 거대한 압력이 있었고 이 압력이 1870년 이후 제국주의적 행

-
- 3) 물론 홉슨 이전에도 마르크스(K. Marx)와 1830년대 영국의 정치경제학자인 웨이크필드(E. G. Wakefield) 등이 자본주의경제와 식민지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설명은 역시 홉슨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4) V. 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in Lenin, Selected Works*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7. 초판은 1916), R. Hilferding, *Finance Capital; A Study of the Lastest Phase of Capitalist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1. 초판은 1910) Rosa Luxemburg, *The Accumulation of Capital*, (New York, Modern Reader Paperbacks, 1968. 초판은 1913) N. Bukharin, *Imperialism and World Economy*, (New York, Howard Fertic, 1966. 초판은 1917)
- 5) 비판자들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홉슨의 이론을 단지 마르크스주의 사상체계에 맞게 개편한 정도로 간주하였다. 이는 레닌이론의 독창성을 부정하고 실천운동의 팽프렐 정도로 격하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R. Koebner, “The Concept of Economic Imperialism” in *Economic Imperialism*, ed. K. E. Boulding & T. Mukerje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2) p. 66. A. Brewer, *Marxist Theories of Imperialism; A Critical Survey*, (London,

창을 일으켰던 주된 요인이었다고 주장한 점에서 양자는 서로 일치했다.⁶⁾

즉 필드하우스는 금융자본의 자본수출이 식민지팽창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주장한 점에서 양자가 일치했다고 본다. 자본수출이 아닌 다른 경제적 요인을 강조했던, 그런 점에서 보다 넓은 의미의 경제적 제국주의론자였던 홉킨스(A. G. Hopkins)와 플라트(D. C. M. Platt) 역시 필드하우스와 인식을 같이했다.⁷⁾

필드하우스는 더 나가 “자본수출이 식민지병합을 가져오는 원동력이었다”는 명제를 홉슨과 레닌이론 모두에 공통된 사회적 특징으로 간주하였다. 필드하우스의 말이다.

“제국주의론의 성·폐가 달린 핵심적 특징은 1870년 이후 건설된 제국들이 유럽과 아메리카에 있는 경제적 선진국들의 선택이 아닌 필연이었다는 단언이다. 즉 그것은 자본주의국가들이 국내에 형성된 과잉자본 때문에 세계의 저개발지역으로 자본을 수출하도록 강제되었으며 장래의 혹은 현재의 투자만이 식민지를 획득하려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다.”⁸⁾

필드하우스의 이 말은 홉슨과 레닌이론에 대한 비판들이 주로 겨냥했던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시사해 준다.

Routledge & Kegan Paul, 1980), p.108. 그러나 적은 분량의 팜프렛을 쓰기 위해 레닌이 준비했던 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Notebooks on Imperialism; Lenin, Collected Works*, Vol. XXXⅡ의 광대한 규모는 우선 양적으로 앞서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것 같다.

6) D. K. Fieldhouse, “‘Imperialism’; An Historiographical Revision”, *the Economic History Review*, Vol. XV, No. 2, 1961, p. 193.

7) A. G. Hopkins, “Economic Imperialism in West Africa; Lagos, 1880—92”, *the Economic History Review*, Vol. XX I, No. 3, 1968, pp. 581~2, P. J. Cain & A. G. Hopkins, “The Political Economy of British Expansion Overseas, 1750—1914”, *the Economic History Review*, Vol. XXⅢ, No. 4 1980, p. 464. D. C. M. Platt, “Economic Factors in British Policy During the ‘New Imperialism’”, *Past and Present*, Vol. XXⅡ, 1968, pp. 120—122. 이들이 레닌의 이론을 비판하고 제시한 자신들의 설명은 사실 레닌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들어 플라트의 경우 개별적인 금융가들의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부정하면서 영국의 무역과 투자의 총체적 미래상이 정부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레닌이론이 자본수출의 주체인 금융자본가의 식민지병합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주장하는 것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뒤에 나오는 95페이지를 참고할 것.

8) 앞서 나온 논문 “Imperialism…” p. 195

홉슨과 레닌이론에 대한 비판자들의 이러한 이해 혹은 인식은 서트클라이프(B. Sutcliffe)와 스투크스(E. Stokes)에 의해 ‘홉슨-레닌모형’ (Hobson-Lenin model) 혹은 ‘홉슨-레닌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⁹⁾ 즉 ‘홉슨-레닌모형’은 비판자들이 홉슨과 레닌의 이론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 내용, 간단히 말해 그들 자신이 이해한 단일한 홉슨·레닌이론이다. 그것은 비판의 대상으로서 만들어진 셈이다. ‘홉슨-레닌모형’에 대한 여러비판들은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금융자본의 자본수출이 식민지병합에서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그럼으로써 ‘홉슨-레닌모형’ 더나가 ‘경제적 제국주의론’ 내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론’이 논파된 것으로 생각했다. 엘드리지(C. C. Eldridge)의 말이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론은 참으로 논증된 적이 없다. ...경제학자들과 역사가들의 철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은 아직도 살아서 개편과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지금도 살아있는 신화는 아마도 단순한 사실에 의한 비판에는 면적이 되었나보다.”¹⁰⁾

‘홉슨-레닌모형’을 논파했다고 주장하는 비판자들의 자신감은 우리가 뒤에 보게 되겠지만, 상당히 정확한 논거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트클라이프와 스투크스는 이들이 비판대상으로 전제한 ‘홉슨-레닌모형’이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20세기초에 성립한 제국주의, 즉 독점자본

9) B. Sutcliffe, "Conclusion" in *Studies in the Theory of Imperialism*, ed. R. Owen & B. Sutcliffe, (London, Longman, 1972) p.315. E. Stokes, "Late Nineteenth-Century Colonial Expansion and the Attack on the Theory of Economic Imperialism", *the Historical Journal*, X II, 2, 1969. p. 288.

10) C. C. Eldridge, *Victorian Imperialism*, (London Hodder & Stoughton, 1978) p.133. 로빈슨은 보다 노골적 표현으로 경제적 제국주의론의 붕괴를 선언했다. "용감한 사냥꾼들은 경제적 제국주의론이라는 노쇠한 신화적 급수를 구석지에 몰아 넣어 이제 포살을 끝냈다." 이말은 H. Brunschwig의 *Mythes et réalités de l'impérialisme coloniale français, 1871-1914*에 대한 로빈슨의 서평에 들어있다. *Journal of African History*, 1, 1961 p.409 A.G. Hopkins, 앞서 나온 논문, "Economic Imperialism..." p.580에서 재인용.

주의를 분석한 것인데 비해 비판자들이 이해한 ‘홉슨—레닌모형’은 19세기 말의 제국주의, 즉 식민지분할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자에 대한 비판이 전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¹¹⁾

이들의 지적은 레닌이론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볼 때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홉슨—레닌모형’이 당장 전적으로 오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레닌 역시 식민지 독점이 이루어진 과정, 즉 19세기말의 식민지 병합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좁은 범위에서 이 논문은 ‘홉슨—레닌모형’에 겨냥된 비판들과 이에 관련된 레닌 자신의 설명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비판의 정당성을 따져보려 한다.

II

‘홉슨—레닌모형’에 겨냥된 여러비판들과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비교·고찰하기 전에 먼저 양자에서 사용된 제국주의의 개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사실 제국주의의 개념은 사용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짐으로써, 제국주의에 관련된 논쟁이 어떤 쟁점을 분명히 한다가 보다는 오히려 이를 모호하게 하고, 종래는 논쟁자체가 무의미한 혼란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¹²⁾

비판자들이 인식했던 ‘홉슨—레닌모형’의 제국주의는 서구열강의 비서구세계에 대한 정치적 지배 또는 이를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¹³⁾ 이러한

11) E. Stokes, 앞서 나온 논문, “Late Nineteenth-Century Expansion...”, B. Sutcliffe, 앞서 나온 책, *Studies in the Theory of Imperialism*, pp. 315—320. 셔트클라이프는 ‘홉슨—레닌모형’을 비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과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낸 신화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 제 2장을 참조할 것.

12) 켈프와 저만스키 등은 제국주의의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는 데서 오는 혼란을 지적하고 있다. Albert Szymanski, *The Logic of Imperialism*, (New York, Praeger, 1981), pp.5—7. T. Kemp,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in *Studies in the Theory of Imperialism*, (앞서 나온 책) pp. 15—22.

13) E. Stokes, 앞서 나온 논문, “Late Nineteenth Century...”, p.286. 사실 19세기말 열강의 아프리카분할에 대한 수 많은 사례 연구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제국주의 개념은 피지배대상지역을 약소국일만이 아닌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제 3세계지역에 한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간접지배, 예를 들어 경제적 지배를 배제한다. 스투스의 말처럼 이러한 의미의 제국주의는 식민주의와 같은 말이다.¹⁴⁾

홉슨은 영국의 식민지병함과 자본수출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다시말해 식민지지배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주된 관심은 모였다는 점에서 그의 제국주의는 식민주의와 동일했다.¹⁵⁾ 그러나 레닌에게 있어 제국주의는 이보다 훨씬 광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레닌의 제국주의는 그 경제적 본질로서 독점자본주의를 의미하며 그 정치적 상부구조로서 자유 아닌 지배를, 구체적으로 말해 반동과 민족적 억압 그리고 병합을 의미했다.¹⁶⁾ 간단히 말해 제국주의는 최종단계에 있는 자본주의 자체를 의미했다. 홉슨의 제국주의, 즉 식민지지배는 레닌에게는 금융자본의 대외관계의 일부속성을 의미할 뿐이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바로 이러한 개념 규정을 가능하게 한 발전된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양상들을 분석한 것이다.

이처럼 제국주의의 개념자체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락을 무시한채 레닌의 이론에서 몇몇 논점을 끄집어 내 그것의 오류를 증명하는 것은, 캠프가 지적하듯이 레닌이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는 것 처럼 보인다.¹⁷⁾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14) 식민주의(colonialism)란 용어는 원래의 뜻과는 달리 오늘날 통상 '제국주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에머슨과 펠드하우스가 정의한 식민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식민주의는 고대그리스 식민지들이나 아메리카 식민지들처럼 본국주민의 해외정착을 포함하는 '식민화'(colonization)라는 용어와 더 이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 식민주의는 이제 제국중심지와 해양으로 분리된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에 대한 지배와 동일시 되었다. 식민주의는 특히 유럽인에 의한 이민족,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통제를 의미한다." Ruppert Emerson & D.K. Fieldhous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Vol. III, p.1.

15) 홉슨은 본래적 의미에서 식민주의를 영국의 확대(Greater Britain)라는 좋은 의미로 생각했으나 현실적으로 식민주의는 제국주의와 동일한 것일 수 밖에 없음을 인정했다. J. A. Hobson,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p.3-13.

16) V. I. Lenin, 앞서 나온 책, 제 7장, 제 10장 참조.

17) T. Kemp, 앞서 나온 논문 "The Marxist Theory..." pp.29-30.

레닌과 비판자들은 제국주의의 개념에 대해 인식을 달리했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출현시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달리한다. '홉슨—레닌모형'의 제국주의는 식민지지배를 의미하므로 식민지병합이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던 1870년 이후 그것이 출현한 것으로 된다.

이에 비해 레닌의 제국주의는 이보다 30여년 뒤인 1900년경에야 출현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인 독점자본주의의 중요한 양상들이 확립된 시기가 1900년 경이다.¹⁸⁾ 구체적으로 말해 이 시기에 독점체들과 금융자본의 지배가 확립되었고 자본수출이 두드러지게 중요해졌으며 국제적인 트러스트들 사이에 세계분할이 시작되고 주요자본주의열강들 사이에 전 세계의 영토적 분할이 완료되었다.

레닌의 제국주의와 비판자들의 그것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등장시기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후자가 전자를 등장시키는 한 조건이 되고 있다. 레닌의 말을 들어보자.

“...지금 고찰하고 있는 시대의(1870년~1900년) 특징적 양상은 전세계의 최종적 분할이다. 여기서 최종적 분할이란 재분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재분할이 가능하고 필연적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의 최종단계, 금융자본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특수한 세계적 식민지정책의 시대에 살고 있다.”¹⁹⁾ (레닌 방점)

‘홉슨—레닌모형’은 최종적 분할이 이루어진 과정을 설명하는 데 반해서

18) 레닌은 “19세기가 끝날 무렵의 호황과 1900—1903년 사이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주의는 제국주의로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 181, 이밖에도 독점자본주의의 중요한 양상들이 확립되는 시점을 여러 곳에서 지적했다. p. 180, p. 200, p. 223.

19) 위 책, p. 200.

20) B. Sutcliffe, 앞서 나온 논문, p. 314. 스투스 역시 “레닌이 독점적 금융자본주의시대가 1870—1900년 사이의 식민지각축기간과 일치하지 않으며 1900년 이후에 왔음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나온 논문, “Late Nineteenth Century...” p. 289. 스투스는 다른 논문에서 레닌 역시 갤러거와 로빈슨처럼 제국주의가 식민지분할의 원인 아닌 결과였다고 주장했음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Imperialism and the Scramble for Africa; The New View”, in *Imperialism; The Robinson and Gallagher Controversy*, ed. Wm. R. Louis, (New York, A Division of Franklin Watts, 1976) p. 189.

그 식민주의적 측면에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이미 분할이 완료된 세계의 재분할의 필연성을, 다시말해 금융자본과 연관된 특수한 세계적 식민지정책을 주로 설명한다. 셔트클라이프가 적절하게 말하듯이 19세기말의 식민지각축은 레닌이 의미하는 제국주의가 아니며 그것의 서쪽에 불과했다.²⁰⁾ 즉 레닌의 제국주의는 부분적으로 전세계의 분할이 완료됐다는 사실의 결과로서 시작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레닌의 ‘특수한 세계적 식민지정책’은 이전의 식민지정책과 성격을 달리한다. 레닌의 말이다.

“독점은 또한 식민지정책으로부터 성장해 왔다. ...1876년 처럼 유럽연강의 식민지면적이 아프리카의 1/10에 불과했을 때 식민지정책은 독점이외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미점유된 영토를 임의로 장악하는(*free-grabbing*)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00년처럼 아프리카의 9/10가 점유되었을 때, 즉 세계 분할이 완료되었을 때, 식민지의 독점적 소유시대가 필연적으로 오게되며 결국 세계의 분할과 재분할을 위한 특히 격렬한 투쟁이 일어나게 된다.”²¹⁾

즉 1900년을 고비로 ‘비독점적’, ‘평화적’ 식민지정책은 ‘독점적’, ‘투쟁적’ 식민지정책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²²⁾

레닌에게 있어서 비독점적 식민지정책으로부터 독점적 식민지정책으로의 전화는 사실 경쟁자본주의의 독점자본주의로의 전화라는 광범한 변화의 일부이다. 즉 20세기 초에 나타난 다섯가지 기본적 특징²³⁾으로 표현되

21)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p. 258—9.

22) 이에 관한 레닌의 구체적 언급은 다음과 같다. “자본이 장애없이 그 식민지를 확장하고 아프리카 등의 미점유영토를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 그리고 자본의 집중이 아직 미약하고 독점적 기업활동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자유무역과 평화적 경쟁은 가능하며 필연적이다. 그러한 독점적 기업활동의 출현과 성장은 이전시대의 자유경쟁을 불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세계분할의 완료는 자본가들로 하여금 평화적 팽창으로부터 식민지악 세력권의 재분할을 위한 무력투쟁으로 전환토록 강요한다. V. Lenin, “The Collapse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llected Works* X II, pp. 225—6. 스투스는 이러한 점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레닌에게 식민지정책의 날카로운 전환시점이 1870년이 아닌 1900년이었음을 주장하나 레닌은 1870년에서 1914년을 한시대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스투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앞서 나온 논문 “Late Nineteenth-Century...” p. 290. 이에 대해서는 이 논문 84페이지 참조.

23) V. Lenin,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p. 232—3.

는 새로운 상황은 전독점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가운데 일어난 단순한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였다.²⁴⁾ 왜냐하면 식민지 독점을 포함해 독점일만은 자본주의의 기본적 특징인 자유경쟁의 대립이기 때문이다.²⁵⁾

이처럼 레닌이론에서 제국주의의 개념과 출현시기 그리고 식민지 정책의 성격이 '홉슨-레닌모형'의 그것들과 서로 다른 분명하다. 서트클라이프는 이런 점들을 들어 레닌이론을 19세말의 식민지각축과 연관시키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하였다.²⁶⁾ 서트클라이프의 이러한 비판은 그 식민지주의적 측면에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19세기말의 식민지각축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를 '독점자본주의로 이행기'에 관한 레닌의 말에서 찾아보자.

“우리는 앞서 자유경쟁이 지배적인 자본주의, 즉 전독점자본주의의 발전이 1860년대와 70년대에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고찰했다. 바로 그다음에 엄청난 식민지정복의 붐이 시작되었고 세계의 영토적 분할투쟁이 비상하게 첨예 해졌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로의 이행, 금융자본으로의 이행이 세계분할 투쟁의 격화와 연관되어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²⁷⁾

즉 레닌은 이행기의 금융자본, 다시말해 아직 지배적이지 못한, 성장중인 금융자본이 식민지병합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뒤에 고찰되었지만 레닌은 식민지병합에 대한 이행기의 금융자본의 역할을 그 비판자들이 해한 것만큼 절대적은 아니지만 중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⁸⁾

이렇게 봤을 때 레닌이론은 비판자들이 간주하듯이 19세기말의 식민지각축을 중대하게 설명하는 이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서트클라이프의 주장처럼 그러한 팽창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레닌이 1900년경 자본주의의 질적 변화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식민지각축이라는 측면에

24) 本間要一郎, “제국주의의 역사적 위치” 『제국주의론』, 眞木實彦등 지음. 박민역, (도서출판 한울, 1986) p. 248 참조. 이 책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대한 해설서이다.

25) V. Lenin,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p. 231-2.

26) 앞서 나온 논문, p. 314.

27)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p. 224.

28) 이 논문 99페이지 참조.

서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기와 그것의 확립기를 사실상 하나의 시대로 파악하고 있다. 레닌이 식민지 분할에 관련된 시점을 1876년으로부터 1900년이 아닌 1914년으로 규정했음을 주목해야 한다.²⁹⁾ 이는 레닌이 세계가 분할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재분할이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한시대로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³⁰⁾ 사실 분할된 세계의 재분할의 필연성이 현실화된 시점이 바로 1914년이다.

레닌이 ‘비독점적 식민지정책에서 독점적 식민지정책으로 이행’에서 강조한 것은 양자의 질적 차이였지 구체적인 시점, 즉 1900년은 아니었다. 레닌은 그러한 시점의 약정적이고도 상대적인 성격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은행자본등이 어느정도로 성장했는가를, 그리고 양에서 질로의 전화가 다시말해 발전된 자본주의의 제국주의로의 전화가 정확히 어디에서 표현되었는가를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자세한 통계를 인용했다. 물론 말할나위 없이 자연과 사회에 있어서 모든 경제설의 획정은 약정적(conventional)이며 가변적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의 결정적인 확립시기가 몇년대 혹은 몇십년대라고 못박는 것은 불합리하다.”³¹⁾

결국 레닌이 강조했던 것은 질적인 전화가 어디에서 표현되었는가였지 언제 표현됐는가는 아니었다.

이제까지 우리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제국주의의 개념과 출현시기, 식

29) 레닌은 주관(A. Supan)이 각국의 식민지 소유면적의 통계에서 시점으로 잡았던 1876~1900년을 뢰브너(Hübner)의 시점인 1914년으로 확장하였다.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 225.

30) 레닌이 다른 저술에서 보여준 시대 구분은 ① 1789~1871, ② 1871~1914, ③ 1914~으로 되어 있는바, “두번째 시기는 부르조아지의 지배의 정점기이자 쇠퇴기, 즉 부르조아지의 전보성으로부터 반동적이지 초반동적 금융자본주의로의 이행기”로 규정되어 있다. “Under a False Flag”, in *Collected Works*, Vol. XX I, p. 146. 즉 레닌은 1871~1914년사이의 기간 전체를 금융자본주의로의 이행기로 보고 있다. 또한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의 서문에서 레닌은 역시 1871~1914 사이 기간을 보다 호전적 상황에 있는 ‘평화적 자본주의’ 시대로 규정하였다. “Introduction” in *Imperialism and World Economy*, by N. Bukharin (앞서 나온 책), p. 10.

31)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 233 다른 저술에서도 레닌은 사회와 자연에 있어 구분이 약정적임을 줄곧 강조하였다. “The Junius Pamphlet” in *Collected Works*, Vol. XX II, p. 309. 앞서 나온 논문, “Under a False Frag” in *Collected Works*, Vol. XX II, p. 146.

민지정책의 성격에 있어서 '홉슨—레닌이론'의 그것들과 차이가 있음을 고찰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레닌이 부분적으로라도 19세기말의 식민지분할을 그의 제국주의론의 체계내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들의 타당성을 고찰할 수 있다. 다시말해 비판자들의 '홉슨—레닌모형'은 레닌의 이론에 대한 빈약한 이해이지만 논의의 현단계에서는 아직 전적으로 오류라고 할 수는 없다.

III

앞서 우리는 '홉슨—레닌모형'의 사활이 달린 핵심적 내용이 “금융자본의 자본수출은 식민지병합의 원동력이었다”는 명제로 간주되었음을 고찰했다. 경제적 제국주의론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러한 명제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반대되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논박해왔다.

이들의 비판은 대체로 두가지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째 방식은 일반적 차원의 것으로 19세기말에 있어 서구 자본주의 열강의 자본수출이 실제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규명하는 방식이다. 다시말해 대외투자가 실제 행해진 지역과 그 규모, 그리고 그 성격을 밝힘으로서 자본수출과 병합된 식민지사이에 전제된 일반적 인과관계의 허구성을 반증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비판방식은 주로 경제학자들의 자본수출에 관한 통계연구에 의존하고 있다. 두번째의 비판방식은 개별적인 병합사례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투자된 자본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방식이다. 즉 개개의 병합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요인이 금융자본의 자본수출이 아니었음을 사실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 비판방식은 일반적인 것보다 특수한 것에 관심을 갖기 쉬운 역사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 차원에서 '홉슨—레닌모형'에 가해졌던 날카로운 비판은 1870년 이후 열강이 대규모로 자본을 투자했던 지역들과 같은 시기에 식민지로

된 지역들이 거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엘드리지의 말이다.

“영국의 자본은 원시적인 열대경제들을 지나쳐버리는 경향을 보여왔다. . . . 1870년 이후 영국의 자본은 제국내의 기초가 잘 된 지역들, 즉 캐나다와 오스트랄리아, 인디아, 뉴질랜드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리고 그밖에 러시아와 중국, 아르헨티나, 미국은 유리한 경제적 조건 때문에 자본을 계속 끌어 들였다. . . . 경제적으로 후미진 지역들을 병합함으로써 투자기회를 창출할 필요는 확실히 없었다.”³²⁾

이러한 비판은 영국의 자본수출통계를 제시한 케인크로스(A. K. Cairncross)와 페이쉬(G. Paish), 닉스(R. Nurkse) 그리고 쉘로트(W. Schlote) 같은 경제학자들의 연구들에 의존하고 있다.³³⁾ 이들의 통계는 ‘흠슨—레닌모형’에 대한 비판에서 단골매뉴 일번으로 등장하고 있다.³⁴⁾ 이들의 통계는 자본수출의 주된 흐름이 예외적인 지역—남아프리카, 이집트—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를 의면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매우 큰 규모의 자본이 투자된 지역이 독립국 내지 기존의 식민지였으며 새로 식민지로 된 지역들이 빈약한 자본만을 이끌었다는 사실은 자본수출과 병합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와해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32) 앞서 나온 책, *Victorian Imperialism*, p.130. 여기서 제국내의 기초가 잘 된 지역 역시 영국의 식민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본수출과 관련된 쟁점이 되고 있는 식민지는 이전의 구식민지가 아니라 1870년 이후 병합된 신식민지이다. 이른바 19세기말 식민지각축기 동안의 병합들은 거의 대부분 아프리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아프리카지역이 주요 투자대상이었는지 여부가 핵심문제로 된다.

33) A. K. Cairncross, *Home and Foreign Investment, 1870—1913; Studies in Capitalist Accumulation*,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53) pp.183—5. G. Paish, “Great Britain’s Foreign Investment”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LXXIV. R. Nurkse, *Patterns of Trade and Development* (Stockholm, 1959), W. Schlote, *British Overseas Trade from 1700 to the 1930’s* (Oxford, 1952) pp.108—9.

34) 엘드리지와 필드하우스, 플라트, 갤러거와 로빈슨, 휴킨스 등의 비판에 이러한 통계는 널리 인용되고 있다. D.K. Fieldhouse, 앞서 나온 논문, “Imperialism...”, pp.197—199. D.C.M. Platt, 앞서 나온 논문, “Economic Factors...”, p.122. J.Gallagher & R. Robinson, *Africa and Victorians; The Official Mind of Imperialism*, (New York, Macmillan, 1967), p.6, A. G. Hopkins, 앞서 나온 논문, “Economic Imperialism...”, p.581

홉슨은 이러한 비판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왜냐하면 홉슨은 그 시대에 있어 영국의 대외정책이 주로 유리한 투자시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었다³⁵⁾고 주장하면서 새로 식민지가 된 지역에 대한 투자의 수치라고 볼 수 없는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식민지병합과 투자를 무리하게 일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³⁶⁾ 그러나 레닌의 경우 이 비판은 전혀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 '홉슨-레닌모형'에 대한 공격에서 이 비판이 것처럼 단골 매뉴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정작 레닌 자신은 열강의 주된 자본수출의 흐름이 새로 식민지가 된 지역, 즉 아프리카일반을 지향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레닌이 열강의 지역별 자본수출통계를 제시하면서 분석한 내용을 들여다 보자.

“영국의 경우 대규모 자본수출은 광대한 식민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프랑스의 자본수출은 주로 유럽으로, 특히 러시아로 갔다. 영국의 식민지제국주의와는 달리 프랑스의 제국주의는 고리대제국주의(usury imperialism)라고 불려질 만하다. 보유한 식민지가 보잘 것 없는 독일의 경우 제 3형의 제국주의라 이름 붙일 수 있는데, 해외에 투자된 독일의 자본은 유럽과 아메리카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³⁷⁾

얼핏 보기에 비판자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것 같은 영국의 식민지제국주의를 잠시 덮어두고 우선 독일과 제 2의 식민지대국인 프랑스에 대한 레닌의 말에 주목한다면, 양국의 주된 자본수출의 흐름은 아프리카식민지를 지향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레닌이 이같은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그가 자본수출과 식민지병합사이의 일반적인 기계적 연관성을 주장하지 않았음을 쉽사리 알 수 있다.³⁸⁾

35)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53.

36) 위 책, p.62. 펠드하우스와 간등은 홉슨의 이러한 통계해석을 '지적인 사기'라고 까지 혹평하였다. D.K. Fieldhouse, 앞서 나온 논문, "Imperialism...", p.190, L. H. Gann & P. Duigan, *Burden of Empire*, (London, Pall Mall Press, 1967) p.41.

37)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p.213-4.

38) 로드니와 스톡스는 자본수출과 관련해 비판자들의 이러한 오류를 지적하였다. W. Rodney, "The Imperialist Partition of Africa", *Monthly Review*,

‘영국의 식민지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의 언급은 보다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스톡스는 “펠드하우스같은 비판자들이 시사하듯이 금융자본이 주로 식민지세계를 지향했다고 레닌이 말하지 않았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이를 시인했음”을 지적했다.³⁹⁾ 여기서 스톡스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식민지의 범위를 잠시 망각하고 있다. 즉 그는 캐나다등의 기존식민지와 1870년 이후 획득된 식민지를 구별하지 않고 식민지일반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므로 스톡스의 앞서 지적은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다. 왜냐하면 펠드하우스등 비판자들이 자본수출과 관련해 문제를 삼고 있는 식민지는 구식민지가 아니라 신식민지였으며, 따라서 현재의 쟁점은 레닌의 ‘식민지제국주의’가 신식민지를 대상으로 하느냐의 여부이다.

레닌은 영국의 ‘식민지제국주의’의 대상을 신식민지로 보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즉 그는 영국 역시 프랑스와 독일처럼 1870년 이후에 획득된 식민지에 대규모자본을 투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레닌은 아프리카지역이 서구 자본주의 열강의 자본을 상대적으로 크게 끌어들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닌이 열강의 자본수출은 일반적으로 후진국을 지향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을 때 그는 후진국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자본이 빈약하고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인금이 낮고 원료가 싸기 때문에 이윤이 항상 높다. 수 많은 후진국들이 세계적인 자본주의적 교호관계에 편입되었을 때 자본수출은 가능해진다. 이 지역에는 기간철도가 부설됐거나 부설중이며, 공업발전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다.”⁴⁰⁾

따라서 레닌이 의미하는 후진국은 아프리카—예외적인 지역을 빼다보면—가 아니라 캐나다와 인도, 오스트랄리아등의 구식민지와 남아메리카등을 지

April, 1970, p.106, E. Stokes, 앞서 나온 논문, “Late Nineteenth-Century ...”, p.295.

39) 위 논문, p.295.

40)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p.212—3.

칭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비판자들이 반증으로 제시한 사실과 이들의 비판대상이었던 레닌의 관련주장이 어찌구니없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로드니의 말처럼 제 1차세계대전 이전에 적은 자본만이 아프리카에 투자했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수 많은 노고들은 레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그의 오류를 증명한 것처럼 보인다.⁴¹⁾

레닌의 '후진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는 또 다른 비판은 후진국에서 자본투자의 수익률이 "레닌이 주장하듯이" 그리 높은 것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엘드리지는 영국의 동아프리카회사와 남아프리카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조차 어려울 정도였다는 사례를 들며 아프리카에 투자된 자본의 수익률이 대체로 본국의 그것보다 그다지 높지 못했음을, 심지어는 더 낮고 불안정한 것이었음을 시사했다.⁴²⁾ 사실 이러한 지적은 열강의 주된 자본수출의 흐름이 아프리카를 의면했다는 사실의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레닌은 아프리카에 투자된 자본의 수익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그러나 항상 '본국보다 이윤률이 높은 후진국'의 범주에 아프리카가 들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레닌이 아프리카의 투자수익률을 비판자들이 단정하듯이 그리 높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아프리카에서의 투자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시함으로써 후진국으로의 자본수출의 필연성을, 즉 '흡吮-레닌모형'의 설명을 부정했던 블로그(M. Blaug) 역시 같은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41) 앞서 나온 논문, "The Imperialist Partition...", p. 104.

42) 엘드리지는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알려진 것보다 실제 더 컸을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투기꾼은 자신의 손실을 떠들어대지 않는 법임을 지적하였다. 앞서 나온 책, *Victorian Imperialism*, p. 133, 그러나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그들의 처음 기대가 식민지병합에 대한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협의의 주장은 이에 대한 '실증적 차원'의 반박이 된다. R. Hyam, "The Partition of Africa", *Historical Journal*, VII, 1, 1964, p. 158.

그는 자본의 수익률이 철도등 사회적 편의시설을 결여한 저개발국가보다 그것을 잘 갖춘 자본이 풍부한 경제(capital-rich economy)에서 일반적으로 높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저개발국가의 경우 수익성을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이러한 하부구조부터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³⁾ 그렇다면 블로그의 ‘저개발국’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할 충분한 이유를 갖는다. 그러나 레닌의 ‘후진국’은 블로그의 ‘저개발국’이 아니라 ‘자본이 풍부한 경제’의 범주에 들어 있는 셈이다.

결국 주된 투자의 흐름이 아프리카를 외면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아프리카의 투자수익률이 낮았다는 사실 및 그것의 요인으로서 아프리카가 사회간접자본을 결여했다는 사실등을 규명함으로써 자본수출과 식민지 병합사이의 일반적인 연관성을 와해시키려 했던 많은 시도들은 그들의 언명과는 달리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별다른 손상을 입힐 수 없었다. 왜냐하면 레닌이 자본수출과 관련해 강조한 것은 결국 새로 병합된 식민지가 아니라 ‘기초적인 조건을 갖춘 후진국’이었기 때문이다.

레닌에게 있어 서구 자본주의 열강의 주된 자본수출의 흐름이 새로 병합된 식민지가 아니었다고 할 때 여기서 제기되는 두가지 문제를 고찰해보자. 첫째 레닌은 어떠한 점에서 자본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가 하는 점이다.

레닌은 제국주의적 지배의 기초로서 자본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레닌은 자본수출이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필연적이고도 전형적이며 소수 열강의 대다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경제적 기초임을 강조했다.⁴⁴⁾ 그러나 이러한 레닌의 말은 자본수출이 금융자본의 국제적인 지배망의 구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지배 형태가

43) M. Blaug, "Economic Imperialism Revisited" in *Economic Imperialism*, (앞서 나온 책) pp.146-7. 블로그는 '기초적 조건을 갖춘 후진국'에 대한 레닌의 언급을 지적하면서도, "공업발전의 기초적 조건이 구비되면 그 지역이, 예컨대 캐나다와 아르헨티나가 더 이상 저개발국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별다른 설명 없이 펴고 있다.

44)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p.212-6.

운데 하나인 정치적 병합, 즉 식민지 지배를 필연적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투자된 자본의 역할이란 측면에서 볼 때,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로드니가 지적하듯이 식민지 분할보다는 경제적 분할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⁵⁾ 레닌의 말이다.

“한 국가의 거대한 금융자본은 정치적으로 독립한 다른 국가의 경쟁자들을 항상 배척할 수 있으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실현가능하다. 경제적 병합은 정치적 병합없이도 완전히 실현가능하며 실제 널리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⁴⁶⁾

레닌은 이처럼 경제적 분할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형식상 독립국이지만 실제 금융적·외교적 예속망에 걸려 든 다양한 형태의 예속국들이 제국주의 시대에 전형적이었음을 강조하였다.⁴⁷⁾ 레닌은 그 전형적 사례로 아르헨티나를 들고 있는데 이 국가는 대규모의 자본이 투자됨으로써 영국의 금융적 종속국으로 되었다. 이렇게 봤을 때 레닌은 1870년 이후 열강의 주된 자본수출의 흐름이 정치적 병합 아닌 경제적 병합을 지향했다고 말한 셈이다.⁴⁸⁾ 이러한 경제적 지배에 대

45) 이에 대한 로드니의 말이다. “레닌에게는 경제적 영토분할이 핵심적 요인이었다. 제국주의가 그 정치적 분할이란 형식을 거의 완전히 바꾸어 경제적 착취라는 본질을 보다 용이하게 추구하게 된 오늘날의 아프리카의 경우 이러한 명제의 정당성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앞서 나온 논문. “The Imperialist Partition...”, p. 114.

46) “A Caricature of Marxism and Imperialist Economism”, in *Collected Works*, XXIII, p. 44.

47)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 230. 레닌은 그의 제국주의론 노트에서 국가적 종속의 세 형태를 보다 세밀하게 그리고 유기적이며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레닌은 α) 금융적·정치적으로 독립한 국가, β) 금융적으로 예속적이지만 정치적으로 독립한 국가, γ) 반식민지, δ) 식민지와 정치적 종속국가로 국가 유형을 분류하면서 이들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Notebooks on Imperialism*, in *Collected Works* XXIX, p. 718, 吉信庸 “제국주의와 세계의 영토적 분할”, 앞서 나온 책, 『제국주의론』 p. 202 참조.

48) 갤러거와 로빈슨은 19세기 영국의 대외팽창을 설명하면서 레닌을 비롯한 경제적 제국주의론자들이, 그리고 더 나가 이에 대한 기존의 모든 설명들이 공식적 제국(formal empire)만을 주요분석대상으로 하고 비공식 제국(informal empire)을 배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19세기말 팽창의 심오한 의미를 파악하려는 역사가들은 아프리카 정글같은 ‘즉석 요리된 걸만 번지르르한 제국(gaudy empire)’이 아닌 다양한 지배형식을 통한 성공적인 경제적 개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The Partition of Africa”, in *The New*

한 강조가 공식적인 식민지가 사라진 오늘날까지도 대외지배에 대한 설명으로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유효한 이론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한 요소인 것 같다. 비판자들은 경제적 지배에 대한 레닌의 이러한 설명을 간과하고 자본수출을 오직 식민지분할과 연관된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비판자들이 레닌의 ‘제국주의’를 그 대외지배적인 측면에서 ‘식민주의’로 간주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레닌에게 있어서 금융자본의 자본수출은 식민지병합과는 무관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레닌은 그 비판자들이 이해한 것처럼 자본수출이 병합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설명했다. 왜냐하면 레닌은 식민지병합의 주된 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만을 끌어들이던 아프리카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닌의 말을 들어보자.

“자본수출의 이해 역시 식민지정복의 충동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식민지시장이 경쟁을 배제하고 독점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이방식은 때때로 채택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그리고 정부납품을 확보하고 이권을 보장받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때문이다.”⁴⁹⁾(방점: 필자)

레닌은 식민지 병합의 첫째 요인으로 금융자본의 원료 독점을 제시한 뒤 자본수출 ‘역시’ 그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⁵⁰⁾ 레닌이 그의 저서에서 자

Cambridge Modern History, X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 639. 앞서 나온 논문, “The Imperialism of Free Trade”, pp. 1-3, p. 15. 갤러거와 로빈슨의 이러한 비판은 레닌 역시 경제적 분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레닌의 이론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투츠는 이들과 레닌사이의 이러한 일치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나온 논문, “Late Nineteenth-Century...”, p. 293

49)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 229.

50) 레닌에 있어 식민지병합에 대한 금융자본의 주된 관심은 자본수출보다는 원료원의 확보였다. 여기서 원료원의 확보는 단순히 공업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원료원의 확보는 독점의 성립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수단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모든 원료산지가 한 그룹에게 장악되었을 때 독점체들은 가장 확고하게 수립된다. ... 식민지소유만이 경쟁자들과의 투쟁에 내재된 모든 불확실성에 대한 가장 안전한 보증을 독점체들에게 제공한다.”라는 레닌의 말에서 우리는 원료원의 확보가 지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즉 그것은 독점체 자체의 중요한 자기실현수단이었다.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p. 227-9, p. 186.

본 수출과 식민지병합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한 부분은 앞에서 인용한 서너줄의 글이 전부이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비판자들이 양자의 결정적 연관성을 레닌의 주장으로 이해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이처럼 “금융자본의 자본수출이 병합의 원동력이다”는 비판자들의 이해, 즉 “홉슨—레닌모형” 자체가 오류로 드러난 마당에, 이에 대해 겨냥된 개별적 방식의 비판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레닌의 이론을 손상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개별적 사례연구들은 금융자본의 자본수출 뿐만 아니라 금융자본 자체의 병합에 대한 영향력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세한 고찰이 요구된다.

Ⅳ

이제까지 우리는 ‘홉슨—레닌모형’에 가해진 일반적 차원에서의 비판들이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논파하기는 커녕 레닌의 이론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들 드러냈을 뿐임을 고찰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투자된 자본이 그 지역의 병합에서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한 개별적 사례연구들 역시 ‘홉슨—레닌모형’에 대한 비판일 뿐 레닌 자신의 이론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다.

그러나 개별적 방식의 비판들은 ‘식민지병합의 원동력으로서 자본수출’을 비판대상으로 구체화 할 때, 자본수출의 주체인 금융자본 자체를 문제 삼기 마련이다. 개별적 병합사태에 관심을 가진 역사가들은 특정한 식민지병합을 가져온 구체적인 상황에 주목하고 “왜 바로 그때 그곳에서 병합이 일어났는가”를 규명하며 한다. 따라서 이들은 실제 병합을 실천한 정부, 더 좁게는 정책을 결정한 관리들의 동기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주목한다.⁵¹⁾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에게 ‘홉슨—레닌모형’은 자본수

51) R. Owen, “Introduction” in *Studies in the Theory of Imperialism*(앞서 나온 책), p.3 참조.

출의 주체인 금융자본이 정부의 병합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⁵²⁾

이들은 구체적 사실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병합정책결정에 대한 금융자본의 결정적 영향력을 부정하고 정치적, 사회적, 전략적, 지역적 요인 혹은 자본수출이외의 다른 경제적 요인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우리는 비판자들이 전제한 식민지병합정책의 결정에 대한 금융자본의 ‘전능한 영향력’을 레닌은 과연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고찰하기에 앞서 이들이 ‘흡수—레닌모형’의 대안으로 제시한 설명일반의, 다시말해 다양한 제국주의론들의 귀착점을 간단히 검토해 보자. 엘드리지는 그러한 귀착점을 잘 시사해 준다.

“신제국주의는 분명히 복잡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신제국주의는 간단하고 용이한 설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같다. 사실 제국주의는 매우 다양한 그리고 서로 연관되지 않은 여러발전들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그것들은 비서구세계에 대한 여러형태의 정치적 통제를 위한 노력이라는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어떤 단일이론도 지난 세기 마지막 분기 동안 전세계의 수 많은, 다양한 지역들에서 다양한 국가들의 행동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포괄적일 수 없다.”⁵³⁾

이러한 엘드리지의 말은 특정한 병합사태에만 타당한 다양한 제국주의론의 등장을 그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같은 제국주의론들의 난립은 19세기말의 세계분할이라는 하나의 세계사적 현상에 대해 사실상 설명을 포기해버렸음을 의미할 뿐이다. 다양한 제국주의론들은 개별성이란 성체에서 안주하려는 것 같다. 이는 스트래치(E. J. Strachey)의 말처럼 “역사를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과 년대들의 뒤범벅(jumble)으로 격하시키는 것”인지도 모른다.⁵⁴⁾ 제국주의론들의 이러한 난립현

52) 필드하우스는 레닌이 별다른 설명없이 “은행과 트러스트의 금융적 힘이 너무나 거대해서 정부가 금융자본가의 명령대로 행동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했다고 단정했다. 앞서 나온 논문, “Imperialism...”, p. 193.

53) 앞서 나온 책, *Victorian Imperialism*, p. 144.

54) E. J. Strachey, *The End of Empire*, (London, Collanz, 1959) p. 273.

상은 부분적으로 비판자들의 년대기적 고찰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어떤 병합이 왜 바로 그때 그곳에서 일어났는가를 규명하는 방식은 어떤 일반적, 구조적 요인보다는 특수성을 나타내는 표면적 촉발 요인을 부각시키기 마련이다.⁵⁵⁾ 결론적으로 말해 '홉슨-레닌모형'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설명들 역시 19세기 말의 세계분할에 대해 정당한 설명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제 비판자들이 지적한 '금융자본의 전능한 영향력'에 대해 고찰해 보자. 서아프리카지역에서의 식민지병합에 대한 탁월한 연구자인 하그리브스(J. D. Hargreaves)는 홉슨과 레닌에 있어 금융자본의 병합에 대한 영향력행사의 설명을 매우 조잡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가장 넓은 그리고 가장 단순한 모형의 경제적 제국주의론은 이해집단의 직접적인 개입을 강조한다. 홉슨과 카우츠키, 록펠부르크, 레닌 같은 지식인들이 이러한 분석을 제기하기 이전에도 급진적인 정치가들과 언론인들은 프랑스의 튀니스 침략이나 영국의 이집트점령의 이면에서 권력의 본거지에 은밀히 접근해가는 약탈적인 특수한 이해 집단의 유해한 영향력을 간파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음모설은 북부 및 남부아프리카, 심지어 열대아프리카에서 조차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⁵⁶⁾

이처럼 하그리브스는 금융자본의 영향력 행사방식에 대한 홉슨과 레닌의 설명을 금융자본가의 음모정도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음모설'은 그 이름

55) R. Owen, "Robinson and Gallagher and Middle Eastern Nationalism; The Egyptian Argument", in *Imperialism; The Robinson and Gallagher Controversy*, ed. Wm. Louis, (Franklin Watts, 1976), p.215. 앞서 나온 논문, pp.3-4, 필자의 앞서 나온 논문, pp.155-160. 사실상 년대기적 고찰방식은 병합을 실행한 정부내지 정책결정자에 주목하기 쉬우며 그 결과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전략적 요인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에컨대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다른 병합사례보다 상대적으로 강력했던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병합에서 조차 경제적 요인은 무시되거나 비중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례연구들에 대한 자세한 문헌안내는 P. J. Cain, *Economic Foundations of British Overseas Expansion, 1815~1914*, (Hong Kong, The Macmillan Press Ltd, 1980), pp.50-58을 참고할 것.

56) *West Africa Partitioned; The Loaded Pause, 1885~1889*, Vol.1,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4), p.20. 엘드리지 역시 이러한 음모설을 언급하였다. 앞서 나온 책, *Victorian Imperialism* p.130.

부터 하나의 과학적 설명으로서 자격미달을 시사한다.

비판자들이 홉슨과 레닌의 설명을 음모설로 간주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금융자본의 주된 투자지역이 새로 병합된 식민지가 아니었다는 일반적 차원의 비판을 이들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자본을 이 지역에 투자한 금융자본이 그 병합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들에게 충분히 무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앞서 고찰한 것처럼 레닌 역시 금융자본이 아프리카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금융자본이 식민지병합에서 모종의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시사한 것도 사실이다. 레닌은 식민지병합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한 금융자본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은행의 고유업무—어음할인, 당좌계정의 개설—가 발전하고 그러한 업무가 몇몇 소수은행으로 집적됨에 따라 은행은 소극적 중개자라는 역할을 벗어나 모든 자본가와 소경영주의 화폐자본의 대부분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나라와 여러 다른 나라의 생산수단 및 원료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전능의 독점자가 된다.”⁵⁷⁾

“독점체가 일단 형성되어 수십억의 재화를 통제하게 되면, 독점체는 정부의 형태나 다른 세세한 것에서의 차이에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공공생활의 모든 영역에 관철된다.”⁵⁸⁾

레닌의 이러한 말은 금융자본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정부조차 자기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레닌은 그 비판자들이 이해한 것처럼 일단 ‘식민지병합에 대해서도 금융자본의 전능한 힘’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이 명제를 수용하는 방식에서, 그리고 이 명제의 적용시기에서 오류를

57)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188.

58) 위책, p.209.

범 하고 있다.

개별적 병합사례를 연구하는 비판자들은 레닌의 이러한 명제를 기계적으로 해석했다. 즉 이들은 금융자본이 모든 식민지병합사례들에서 직접적(immediate) 요인인 것으로 이해했다.⁵⁹⁾ 따라서 이들이 병합을 가져온다는 직접적 요인을 찾아냈을 때 레닌의 명제는 오류로 된다. 그러나 레닌은 다른 맥락에서 경제적 원인과 정치적 결과를 이치럼 기계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을 제국주의적 경제주의(imperialist economism)라며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⁶⁰⁾

레닌의 전능한 금융자본에 대한 언급은, 셔트클라이프가 적절하게 지적하듯이 영토적 팽창을 정당화하거나 필연적으로 만들기 위해 항상 제기 되는 다양한 비경제적 요인들이 참되고 어떤 경우에는 결정적이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19세기말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일반적인 팽창주의적 태세의 이면에 구조적인 경제적 요인이 도사리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⁶¹⁾ 필드하우스가 주장하듯이 “역사가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포괄적인 역사적 공식(all-embracing historical formula)”, 즉 “단 하나의 지배적인 영향력에 의해 복합적인 발전들을 설명하는 공식”⁶²⁾을 레닌의 이론은 의미하지 않았다. 레닌은 “사회적 삶의 현상이 극도의 복잡성을 가지므로

59) 이 논문의 p.95 참조할 것.

60) 레닌은 제국주의가 일정한 단계에서 승리하게 되어있으므로 정치적 민주주의 내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 키에브스키와 로자 룩셈부르크 등을 제국주의적 경제주의자들과 비교하고 있다. 레닌에 따르면 이들은 제국주의의 필연성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정치적 행동을 기피하고 그럼으로써 광신적 애국주의를 은밀히 지원한다는 것이다. “A Caricature of Marxism and Imperialist Economism”, in *Collected Works*, XXIII, pp.28-76, “The Junius Pamphlet”, in *Collected Works*, XXII, pp.305-319.

61) 앞서 나온 논문, pp.316-7. 셔트클라이프는 레닌의 이론이 한 현상의 본질을 설명하는 이론화(theorization)임을 지적하여 이러한 이론화와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것을 가정한 일반화(generalization)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2) 앞서 나온 논문, “Imperialism...”, p.195. 예를 들어 켈러거와 로빈슨은 포괄적인 단일설명모형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즉 이들은 “하나의 결정적 요인에 입각한 어떠한 제국주의이론도 아프리카분할이란 복합적인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며”, “사회과학자들의 어떠한 사후합리화(hindsight)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분할의 이면에는 어떤 포괄적 원인이나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였다. 앞서 나온 책, *Africa and Victorians*, p.471. 앞서 나온 논문, “The Partition of Africa”, p.593.

고립된 자료를 취했을 때 어떤 명제라도 증명이 항상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현상의 본질의 이해를 위해 경제적 토대에 주목해야 한다⁶³⁾고 강조했을 뿐이다. ‘금융자본의 전능한 힘’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비판자들이 이해한 ‘금융자본의 전능한 힘’이 레닌의 설명에서는 독점자본주의의 확립이후의 시기(1900년 이후)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시기(1870~1900년)에서 미세하지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고찰한 것처럼 확립된 금융자본이 가지는 전능한 힘을 성장중인, 아직 미약한 금융자본이 소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⁶⁴⁾

그렇다면 연강의 식민지 각축기, 즉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기에 있어서 레닌은 식민지병합과 금융자본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레닌의 말을 들어보자.

“프랑스에서 1880년대 부터 팽창주의적 식민지정책을 극단적으로 강화시켰던 것은 바로 금융자본의 극히 빠른 발전과 산업자본의 쇠퇴였다. 이러한 사실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⁶⁵⁾

이처럼 레닌이 이행기에 있어서도 금융자본과 병합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스투스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레닌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의로 모호하게 남겨 두었으며 그것은 결국 일방적인 경제적 설명이라고 주장했다.⁶⁶⁾

그러나 이행기에 있어서 금융자본의 영향력에 대한 레닌의 설명은 그

63) 레닌은 자기저술의 불어판과 독일어판의 서문에서 이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p.171-2.

64) 이 논문, p.83을 참조할 것.

65)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234.

66) 앞서 나온 논문, “Late Nineteenth-Century...” p.291. 레닌이론을 지지하는 키어난 역시 보다 완곡한 표현으로 이러한 모호성을 시사하였다. 그에 따르면 레닌이 자본의 집중과 식민지각축사이의 연관성이 단지 양자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을 때, 레닌은 설사 수학적으로 논리적이지는 않았지만 지더라도 완전히 타당했다는 것이다. V.G. Kiernan, “Farewells to Empire; Some Recent Studies of Imperialism” *The Socialist Register*, 1964, p.259.

비판자들이 이해한 정도로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모호한 것도 아니었다. 레닌은 열강의 식민지소유면적이 그 금융자본의 규모에 비례함을 시사하면서 다른 요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다.

“순수한 경제적 조건에 덧붙여서 그리고 경제적 조건의 토대위에서 지리적 조건과 다른 조건들 역시 식민지면적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⁶⁷⁾

“금융자본은 수 많은 옛동기들에 원료원과 자본수출, 세력권을—유리한 거래와 이권, 독점이윤등을 위한 영역, 즉 경제적 영토일반을—위한 투쟁을 첨가하였다.”⁶⁸⁾

이렇게 봤을때 레닌이 이행기에 있어서 병합에 대한 금융자본의 증대할 영향력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요인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그의 설명을 '일방적인' 경제적 설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금융자본으로의 이행기'라는 레닌의 말에서 병합에 대한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해 가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낼 수 있다. 왜냐하면 1870년대 막 성장하기 시작한 금융자본은 1900년경 확립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⁶⁹⁾ 결국 위에서 인용한 레닌의 말은 금융자본의 성장에 따라 병합에 대한 그것의 상응하는 영향력증대라는 사실상 구체화시키기 어려운 과정을 사상해 버리고 이행기 일반에 있어 금융자본과 병합사이의 일반적 연관성을 추상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개별적인 병합사태들을 연구한 비판자들이 병합을 가져온 다른 요인들을 제시하면서 '금융자본의 전능한 힘'을 논박하는 것은 레닌의 이론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7)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226.

68) 위책, p.258.

69)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레닌에 있어 독점의 진행시기와 식민지분할의 진행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즉 독점이 시작된 시점에 식민지 분할이 시작되었고 전자가 확립되었을 때 후자는 완료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적 독점의 진행과 식민지 독점의 진행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吉信鵬, 앞서 나온 논문, “제국주의와 세계의 영토적 분할” pp. 193-4. 참조.

‘이행기의 금융자본’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로부터 제기되는 또다른 비판은 금융자본의 확립시기와 대규모 식민지 팽창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필드하우스의 말이다.

“레닌의 이론은 영국의 경우 오류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식민지자축시기에 영국의 자본이 몇몇 트러스트나 카르텔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주된 식민지 팽창시기는 1880년에서 1900년사이의 기간이었던 데 비해 카르텔시대는 1900년 이후에야 시작되었다.”⁷⁰⁾

이러한 비판은 성장중인 금융자본이, 확립된 금융자본처럼 절대적은 아니지만, 식민지병합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레닌의 설명을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줄 따름이다.

끝으로 금융자본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들 역시 식민지병합을 단행했다는 사실을 들어 금융자본과 병합사이의 연관성을 논박한 비판을 고찰해보자. 엘드리지는 금융자본의 발전이 미약한,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등에 오히려 채무를 지고 있었던 러시아와 포르투갈, 이태리등이 식민지를 소유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식민지병합과 금융자본사이의 일반적인 연관성을 왜해시킨다고 주장했다.⁷¹⁾

그러나 레닌 역시 금융적으로 종속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독립적인 국가들이 식민지병합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⁷²⁾ 그는 영국의 포르투갈에 대한 금융적지배 관계를 예로 들면서 “그러한 관계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시대에 일반적 체계로 되고 총체적 세계분할관계의 일부를 이루며 세계금융자본의 작동연쇄에서 고리로 된다”⁷³⁾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비판은 레닌의 제국주의적 세계지배체계가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지배 예측관계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70) 앞서 나온 논문, “Imperialism...”, p. 197.

71) 앞서 나온 책, *Victorian Imperialism*, p. 129.

72) 앞서 고찰했듯이 레닌은 금융적으로 예속되어 있으나 정치적으로 독립한 국가들이 반식민지 및 식민지와 연관관계를 인식했다. 이 논문의 주 47) 참조할 것.

73)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 230.

우리는 이제까지 19세기 말 서구자본주의열강의 식민지팽창에 대한 설명으로서 ‘홉슨—레닌모형’에 겨냥된 여러 측면에서의 실증적 비판들이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대한 논박에 실패했음을 고찰했다. 이러한 실패는 비판자들이 그들의 비판대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기인한다. 즉 이들이 비판대상으로 이해했던 ‘홉슨—레닌모형’은 홉슨의 이론에 가까운 것이었을 뿐 레닌의 이론을 그 대외지배라는 측면에 국한해서 조차 제재로 반영한 것이 아니었다.

비판자들의 이러한 오류는 결국 19세기 말의 식민지팽창에 대한 설명으로서 홉슨의 이론과 레닌의 이론을 동일하게 보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들은 홉슨에 대해 레닌이 너무 큰 빛을 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사실 레닌이 그의 저서에서 홉슨을 ‘높이 평가하고 그에게 많은 의존을 했음을 분명히 했다.’⁷⁴⁾ 그러나 셔트클라이프의 지적처럼, 레닌이 홉슨에게서 빌려온 것은 영국에 있어서 금융자본과 식민지병합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였지 이론적 관점은 아니었다.⁷⁵⁾ 결국 ‘홉슨—레닌모형’은 양자의 이론적 유사성을 매우 과장한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사실’에 입각한 이러한 실증적 비판은 비판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어느 면에선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온 듯하다. 왜냐하면 비판의 논거로서 제시된 사실들이 대개의 경우 레닌에게도 인식된 사실이었으며, 따라서 레닌은 그러한 사실에 모순되지 않게 자신의 이론을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오류라는 점과 레닌의 이론 자체가 정당하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다. 레닌이론에 대해 정당한 비판이 가능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많은 비판자들이 어찌구니 없게도 이처럼 비판대상 자체를 잘못 이해했

74) 레닌은 제국주의론의 집필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에 관한 자료의 부족으로 큰 곤란을 겪었다면서 그러나 제국주의에 대한 영어로 된 주된 저술, 즉 홉슨의 제국주의론을 이용했음을 토로하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게 다룰 만한 가치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레닌은 카우츠키를 비판하면서 역사적 구체성(historical concreteness)의 설명에서 그가 홉슨보다 열등하고 부정적이라고 공박했다. 앞서 나온 책, *Imperialism*, p.169, p.235.

75) 앞서 나온 논문, p.315.

다는 사실은 제국주의라는 연구분야가 현실적으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노출되기 쉬운 경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듯 하다.⁷⁶⁾

76) ‘홉슨—레닌모형’에 대한 비판에서 ‘살해’라든가 ‘괴물’, ‘금수’같은 감정이 내포된 비중립적 용어가 드물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 p.78 참조할 것. 비판자들의 ‘홉슨—레닌모형’에 대한 논박의 ‘현실적’ 절박성은 페브너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학문적인 (정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제국주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그에 따르면 경제적 제국주의 논의 서구열강 각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애국심을 약화시켰으며 피지배민족의 열강에 대한 적개심을 안타깝게도 고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M. Koebner, “The Concept of Economic Imperialism”, in *Economic Imperialism*, (앞서 나온 책), p.65.